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소중한 인연들

만남은 설렘이지만 헤어짐은 아쉬움이다. 만남은 날아서 오지만 헤어짐은 기어서 간다. 만남은 무지개 빛으로 다가오지만 헤어짐은 안개비를 뿌리며 더디게 간다. 만남은 소중한 인연이지만 헤어짐은 더욱 소중하게 마무리해야한다.

옷깃 스치는 것도 인연이라지만 만남은 끌어당김이고 헤어짐은 밀어내기의 법칙으로 동전의 앞, 뒤나 그림이 같지 않다. 만남은 느낌의 배려에서 비롯되지만 헤어짐은 확인 사살처럼 감정의 막 내림으로 마무리된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누구나 천 번의 만남과 만 번의 헤어짐 속에서 철이 들고 늙으며 병들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숱하게 겪으며 윤회하는 만남과 헤어짐에 서툴고 어색하며 같은 몸짓으로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다.

우선은 남의 밥 콩이 굵게 보이는 중생심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눈높이만큼 세상이 보이고 보인만큼 알아차리며 즐거움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의 쳇바퀴를 쉴 틈 없이 돌고 있는 다람쥐가 되는 것이다. 더러는 장닭처럼 허세를 부리며 깃털을 세우며 거드름을 피우고 똥개처럼 아무에게나 짖어대며 경계하듯 탐색전을 즐기지만 만남과 헤어짐 뒤엔 남는 것은 허무의 그림자 같은 빈 손 뿐인 것이다. 때 늦은 후회도 삶의 뒤안길에서 되돌아보면 가벼운 나의 말과 행동이 지는 낙엽처럼 마른 버짐처럼 싸하게 가슴 깊이 번지는 것을 느낄 터이다.

세월이 흐르면 무엇이 남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남는 것은 빈손, 빈손의 허무뿐이다. 일생을 가꾼 마음의 영토에서 추억의 줄기처럼 타작해보면 알곡은 몇 알이 안 되고 검불떼기 뿐인 안쓰러움이 후회로 남는 법이다. 검불더미 속에서 외톨이의 삶을 분해해보지만 흔들리는 어금니처럼 달아난 젊음이 두어 방울의 눈물로 남을 터이다.

젊은 시절 글짓기를 즐기던 나는 오현 · 정휴 · 성우 · 지현 스님 등과 '승려시인회'를 만들어 동인지도 발간하고 분주한 몸짓으로 뻐기며 살았다.

나이 들어 죽음의 문턱에서 떠날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요즈음, 오현 스님은 설악산의 산신령으로, 정휴 스님은 천하제일의 자유인으로, 성우 스님은 종단의 전계사이자 BTN불교TV 회장으로, 지현 스님은 번역 대가(大家)의 선지식으로 색깔을 달리하며 까마득히 멀리 있다.

요즘은 지리산의 용타 스님과 영산 스님, 도법 스님, 그리고 숨은 도인 광재 스님과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며 붉은 노을로 살고 있다.

한때는 오현 스님과 정휴 스님, 나는 셋이서 '고행자 수첩'이란 책을 함께 펴내며 걸레스님 중광과 잡설(雜說)을 즐기며 더러는 살아있는 전설 속의 몸짓으로 여행 아닌 여행을 즐겼었다.

중광 스님은 천재 화가답게 선배로서 죽음도 먼저 맞이했지만 10권의 책으로도 부족할 그의 자유분방함은 세월이 흐를수록 전설로 남을 터이다.

오현 스님과 정휴 스님과의 첫 만남도 지극히 소설적인 살아있는 전설이다. 계림사로 오현 스님을 찾아갔을 때 오현 스님은 누워있는 자연스런 몸짓으로 나를 보며 팔뚝 굵어 시(詩)쓰는 일보다 가스나 섬기는 일이 제격이라며 호탕하게 웃었고, 불국사 강사인 정휴 스님을 처음 만나 함께 잠을 자는데 정휴 스님은 문구멍으로 볼일을 봐 나의 기차표 하얀 운동화가 흥건히 젖어 있던 일도 어제 같다.

몇 년 전부터 늙은이들이 도반 모임으로 가끔씩 만나고 있다. 통도사의 혜남 스님이 사자암에 와서 두어 차례 밤을 밝히며 대화 나누며 도담(道談)을 즐겼는데 혜남 스님은 몸으로 설법하는 스님다운 스님으로 좋은 도반으로 꼽힌다. 늙어갈수록 허울의 옷을 벗고 순수하게 진솔한 삶을 몸으로 보여야 참 스승이고 착한 벗인 것이다.

맑고 밝은 모습으로 개운하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누가 무엇을 물어도 머뭇거리거나 망설임 없이 진리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힘이 진정한 의미의 힘인 것이다. 있는 듯이 없는 듯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연에 순응하며 드러내고 감출 것 없이 살아야 인생 마무리의 삶인 것이다. 만남도 소중하지만 헤어짐에 방점을 찍어 개운하고 아름답게 마무리를 준비하며 살일이다.

만남은 설렘이지만 헤어짐은 아쉬움
개운하고 아름답게 마무리 준비하자

상식에 어긋난 말로 화두를 던지다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수산성념(首山省念:926~993) 선사는 임제 선사의 5대손이다. 처음 출가한 후 각처의 선지식을 두루 찾아다니며 두타행을 실천하다가 〈법화경〉을 3000번 수지독송 했다. 그래서 그를 염법화라 부르기도 하였다. 한 번은 풍혈연소(風穴延沼) 선사의 회상에 있을 때 어느 날 풍혈연소 선사가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었다. 깜짝 놀란 수산 스님이 다가가 "스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었다. 풍혈 선사가 대답하기를 "임제의 법맥이 내게서 그만 끊어지는 게 슬퍼서 그러네"하였다. 이에 수산 스님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 "저라도 스님의 법을 이으면 되지 않을까요?" 했다. 그러자 다시 풍혈 선사는 "자네는 〈법화경〉에 걸려 있어서 되겠나?"고 하였다. 수산 스님도 다시 "이제부터 공부를 다시 하여 스님의 법을 잇도록 하겠습니다"고 했다.

이렇게 하여 각고의 정진 끝에 결국은 수산 스님이 풍혈 선사의 인가를 받고 그의 법을 잇게 되었다. 그가 법을 펼 때 사용한 여러 가지 공안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죽비를 소재로 한 '배촉관(背觸關)' 이야기는 특별히 유명하다.

〈선문염송설화〉에 소개된 내용은 이렇다.

어느 날 수산 선사가 죽비를 집어 들고 어떤 학인에게 보이면서 물었다.

"이것을 죽비라고 부르면 그 말에 물들고, 죽비가 아니라고 하면 등지게 된다. 자, 말해 보게.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가?" 이 공안을 '배촉관'이라 한다.

150년 후 송나라 대혜종고 선사가 이 '배촉관' 이야기를 들어 대중에게 법문을 했다.

"나는 방에서 항상 선수행자들에게 묻는다. 죽비라 부르면 그 말에 물들고, 죽비라 부르지 않으면 등지게 된다. 말을 해서도 안 되며 말을 안 해서도 안 되며, 생각해서도 안 되고 헤아려서도 안 되며, 옷소매를 털고 떠나서도 안 되니, 그 중에 어떤 것도 안 된다. 그대들이 죽비를 빼앗아 부정하려 한다면 내가 빼앗도록 허용하겠지만, 내가 주먹이라 부르면 그 말에 물들고 주먹이라 부르지 않으면 등지게 된다고 할 경우 그대들은 어떻게 빼앗아 부정할 것인가?"

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어떤 사람이 수산 스님에게 물었다.

"부처란 무엇입니까?"

"며느리를 나귀 등에 태우고 시어머니가 고삐를 잡고 길을 간다."

이것은 '수산신부(首山新婦)'로 알려진 공안인데 파설(破說)을 무릅쓰고 의리(義理)를 따져 이 말 속에 들어 있는 뜻을 풀어내기도 하였다.

며느리를 나귀 등에 태우고 시어머니가 고삐를 잡고 가는 것은 우선 상식에는 어긋나는 경우다. 당연히 어른인 시어머니를 태우고 며느리가 고삐를 잡고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이야기다.

그러나 상식에 어긋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상식이라는 것도 일종의 고정관념이다. 가령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상상해 본다. 며느리가 뱃속에 애기를 가진 임산부였다. 그리하여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나귀 등에 태우고 간 사연을 알게 되었을 때 처음 상식에 어긋난다고 의아해 하던 마음이 수긍이 되어 지면서 시어머니가 중요하고 고마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때는 어떨까? 상식에서 느끼지 못했던 감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상식과 다른 뒤바뀐 상황에서 오히려 상식보다 더한 감동 같은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메시지는 마음에 감동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 부처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는 제일구의 소식은 아니다.

수산삼구(首山三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종용록(從容錄)〉에 의하면 수산 스님이 대중에게 말한다.

"제1구에서 알아차리면 불조의 스승이 되고, 제2구에서 알아차리면 인천의 스승의 되며, 제3구에서 알아차리면 자신도 구제하지 못한다."

이때 어떤 학인이 "화상께서는 몇 번째 구절에서 알아차렸습니까?"하고 물었다. 이에 말하기를 "삼경에 달이 지더니 저자를 뚫고 지나가는구나.(月落三更穿市過)"라고 하였다.

마음의 별칭, 부처



진원 스님의 깨달음 찾는 〈금강경〉
㉕ 실상을 보는 법

유건 스님이 어느 날, 법당 뒤에서 좌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마조 선사는 유건 스님의 귀에다 대고 '휴우' 하고 입김을 두 번 내뿜었습니다. 유건 스님은 선정에서 깨어나 선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선정에 들었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선사는 곧 시자를 시켜 유건 스님에게 차 한 잔을 가져다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유건 스님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휙 일어나더니 곧장 그의 방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마조 선사가 내뿜은 두 번의 숨으로 선정에서 깨어난 유건 스님은 선사의 한숨이 수행의 과정임을 알고 다시 선정에 들었으나, 시자를 통해 보내온 차 한 잔을 보고 급히 방으로 돌아간 것은 좌선이 결코 치하와 보답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으로, 유건 스님은 마조 선사의 심중을 이미 간파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일으키는 한숨은 부처님의 뜻을 깨닫는 길잡이가 되어 수보리 존자처럼 감격의 눈물을 흘릴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참으로 희유하시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심히 깊은 경전을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예로부터 오면서 얻은 바 지혜의 눈으로는 일찍이 이와 같은 경을 얻어 듣지 못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얻어 듣고 신심이 청정하면 곧 실상이 생긴 것이오니, 이 사람은 마땅히 제일 희유한 공덕을 성취한 것임을 알겠나이다."

이와 같이 심히 깊은 이 경전을 말씀하시는 것을 예로부터 오면서 듣지 못하였고 수보리 존자가 지닌 지혜의 눈으로도 알지 못했는데,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신심(信心)이 청정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린 이 마음을 곧 실다운 상(實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실상이 생긴 사람의 공덕은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를 쌓아놓고 남을 위해 보시한 사람의 공덕보다 더없이 뛰어나고 희유한 공덕을 성취한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 실다운 상이라는 것은 곧 상이 아니오니 여래께서는 이름이 실다운 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분별망념을 여읨으로 신심이 청정한 것을 실다운 상이라고 하여, 실다운 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분별망념을 여읜 것을 무엇인가 문자로 나타내려 하다 보니 실다운 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다운 상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여 애착한다면 이는 허망한 상이므로, 실다운 상을 애착하지 않으면 실상이라는 것이 곧 실상이 아니고 이름이 실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이라는 이름은 마음의 별칭으로 이와 같이 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와 같은 경전을 얻어 듣고 알고 받아 지니는 것은 어렵지 않사오나 만일 이 다음 세상 이천 오백년(후오백세) 뒤에 어떤 중생이 이 경을 얻어 듣고 믿어 이해하여 받아 지닌다면 이 사람은 제일 희유한 사람이옵니다."

이 다음 세상 이천 오백년 뒤 우리들 중에 누가 있어 이 경을 얻어 듣고 믿으며 마음으로 행한다면, 그는 삼계의 28천(天) 가운데서 가장 높은 무색계(無色界)의 경계에 머물고 있으며, 보살 10지(地)에 해당하는 보살 성인(聖人)이므로 참으로 희유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오면 이 사람은 '나라는 상'도 없고 '남이라는 상'도 없고 '중생이라는 상'도 없고 '오래 산다는 상'도 없는 까닭이옵니다. 왜냐 하오면 나라는 상이 곧 상이 아니오며, 남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오래 산다는 상이 곧 상이 아니옵니다."

지금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함은, 부처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부처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생각, 즉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부처이다 함은, 부처는 생각과 마음으로 인하여 있으므로 부처는 마음의 별칭인 것입니다.

삶의 무한 지혜, 香향이 세상에 나왔다!!
화제의 신간
完전한 지혜의 세계, 密밀이 세상에 나왔다!!





허공천(虛空天)
향운계(香雲界)에서
향수(香水)의 비가 내려
바다에 떨어지니
바다가 향수대해(香水大海)를 이룬다.

향1권 기품, 승화, 사유, 이성(理性)의 향기
향2권 지혜, 정신, 마음, 지성(知性)의 향기
향3권 생명, 차(茶), 초월, 꽃잎의 향기를 담았다.

박명숙(德慧林)저 / 향 1권 336쪽 / 향 2권 328쪽 / 향 3권 320쪽 / 정가 각 23,000원

최상 깨달음 지혜 과정이
이보다 더 상세할 수는 없다.

5, 6, 7, 8, 9식(識) 전변 깨달음세계와
완전한 깨달음 6종각(六種覺)인
5각, 6각, 7각, 8각, 9각,
10각(十覺) 성불 과정의 경계와
지혜의 길을 상세히 완전히 밝혔다.
밀법 태장계와 금강계, 옴마니반메훔,
광명진언 등의 실상세계를 자세히 밝혔다.

박명숙(德慧林)저
밀1권 500쪽 / 밀2권 584쪽 / 정가 각 35,000원

관음출판사
홈페이지 : www.gubook.co.kr E-mail : gubooks@naver.com
Tel. (02) 921-8434 Fax. (02) 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